

行星솔라리스 (Solaris)

스타니스라프 · 렘 (Stanislaw Lem) 作

徐 光 云 訳

(한국SF作家클럽회장)



솔라리스·스테이션에 새로 부임해온 심리학자 켈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동료들은 술에 빠져있거나 자기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며 연구원외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무엇인가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면 흑인여자 비슷한 사람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더우기 연구원중의 한사람이 죽어있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자살한 것같은 흔적이 있다. 남아있는 수수께끼같은 실마리를 잡고 켈빈은 사태의 규명에 착수한다. 그러자 자살한 옛 애인 해리가 뜻밖에도 나타난다.

行星솔라리스는 2重星을 태양으로 모신 행성으로서 중력관계상 마땅히 복잡한 궤도를 감돌아야함에도 실은 그렇지 않다.

솔라리스가 발견된지 1세대가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에워싸고 갖가지 추측이 나돌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풀이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연구는 막다른 골목으로 빠지고 어느덧 지구인들과는 인연이 없는 존재로 잊혀져가고 있었다.

궤도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 솔라리스의〈바다〉인것같다는 것까지는 판명됐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전혀 알수가 없었다. 행성의 거의 전

역을 망라하고 있는 이 原形質狀의 〈바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또한 知性을 갖고있는 것일까?

콜로이드狀의 원시해양으로부터 진화의 단계를 경충 뛰어넘어 자율성을 간직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가 돼있는 것일까?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속에서 비과학적이라고 판정되어 묻혀 있던 귀중한 문헌을 발견하여 솔라리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사람은 바로 자살했던 연구원 기발리안이었다.

그 기록문서에 따르면〈바다〉는 접근해오는 것에 대해서 결코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고 도리어 피하려는 성질이 있다. 반면에 때로는 그러한 물체를 모방하거나 사람의 意識 깊숙이 있는 것을 形象化하는 수도 있는 것 같다.

바꿔말해서 거기에는 어떠한 知性이 있음직하고 지구적인 규범으로는 헤아릴 수없는 무엇인가 거대한 幼兒性같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규칙성이 없다.

그러한 바다와의 접촉, 교류를 찾아서 기발리안이 바다에 X線을 照射하면 이를 계기로 사람과 바다와의 기묘한, 어떤 뜻에서는 그들이 바라던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는 교섭이 시작된다.

바다는 특수한 電磁波로 인간의 잠재적인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에 가장 두드러진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이미지를 實體化하여 보여주고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잊어버릴 수 밖에 없는 마음속의 비밀이 있다. 그러한 것을 의식의 밑바닥에 매장함으로써 사람은 살아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바다〉는 것처럼 달콤하고 비통하고 창피한 과거의 心像을 끌어내어 形像化시켜서 사람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조작에 대해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기발리안이 자살하고 나머지 두사람이 自閉症에 걸린 일도 이 때 문이었다.

그리하여 켈빈 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죽음으로 몰았던 애인 해리-그의 추억속의 여자였다. 그러자 켈빈의 심리속에서 갈등이 얽힌다. 그녀는 단순한 幻影이 아니라 물적인 實體를 갖춘 해리자체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른바 〈바다〉가 조작하는 인형이기도 했다. 켈빈은 존재할 수 없는 그녀를 매장하려고 위성궤도에 쏘아올렸으나 금방 제3의 해리가 나타난다. 이는 不死身의 괴물이어서 켈빈의 결을 떠나질 않는다.

마침내는 켈빈의 이성과 감정이 분열하기 시작한다. 연구원들이 〈손님〉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존재는 물리적으로 分子의 단계까지는 보통 물질과 다름이 없으나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대신에 그 수만분의 1 크기의 뉴트리노(中性子)로 여겨지는 미소한 素粒子로 이룩되고 있다. 어쨌든 〈바다〉가 알 수 없는 힘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성이 납득하는 반면에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해리는 어디까지나 해리이며 접촉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츰 자립하여 인간화되어간다. 그러한 그녀를 켈빈은 진짜 해리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해버린다.

절망적인 시도로서 스테이션의 연구원들은 마지막 실험을 단행한다. 여태까지 〈바다〉가 수색해온 것은 수면중의 사람의 마음-즉 이성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정신활동의 총체는 아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을 때의 뇌파를 X선으로 바다를 향해서 송신하여 인간자체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시키자는 것.

이에 성공하면 〈손님〉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바꿔말해서 해리들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말는지도 모른다.

바다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사람들의 희망, 절망, 원망, 꿈, 고민, 악몽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는 오직 자율운동만을 계속할 따름. 실험은 중지된다.

켈빈은 해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인간스럽게 된 해리는 켈빈의 고민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떠 연구원이 만든 장치로 자기자신을 소멸시키고 말았다. 괴물이 인간으로 승화한 끝에 자살한 것이다.

삶에 있어서 〈뜻〉과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작가와 작품

작가 스타니스라프·렘은 1921년 폴란드領이었던 西우크라이나의 루브프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2차대전후인 46년 古都 크라크프로 옮겨 야기에보大學의 의학부에 적을 두고 이론생물학, 최신과학 문헌, 사이바네틱스, 수학, 철학등 닦치는대로 남독했다.

소년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志向이 높아 46년에 공상소설 〈화성에서 온 사나이〉로 데뷔. 51년에 〈金星 응답없음〉으로 인기를 차지했다.

55년에는 〈마젤란 星雲〉을 비롯, 본편은 61년에, 71년에는 〈未來学会〉등 순수한 SF를 계속 쓰고 있다.